

2020년 10월 2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추가 부양책 타결 기대 속 가치주 강세

펠로시 하원 의장, “부양책 협상 낙관적이고 거의 다 왔다”

미 증시 변화 요인: 코로나 피해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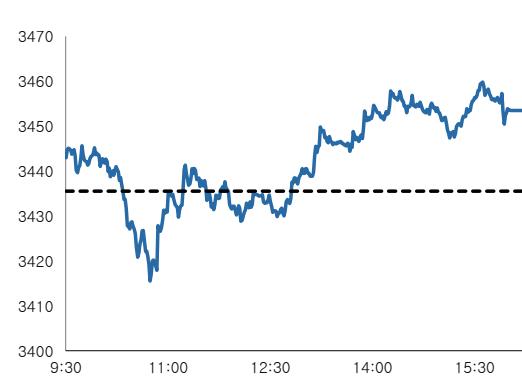
미 증시는 고용지표를 비롯한 경제지표 호전으로 상승 출발 했으나, 코로나 재 확산을 비롯한 증시 주변 여건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이 1%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그런 가운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한편, 부양책 기대와 라스베가스 샌즈(+8.42%) 실적 발표로 금융과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다우 +0.54%, 나스닥 +0.19%, S&P500 +0.52%, 러셀 2000 +1.65%)

미 증시는 코로나 우려 및 추가 부양책 협상, 그리고 기업 실적 결과에 따라 변화를 보임.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음.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봉쇄를 확대. 일각에서는 3 월 경제 봉쇄 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미국에서도 6 만건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11 월 이후에 더 확산 될 것으로 주요 연구기관은 예측.

이런 가운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장중에 “부양책 협상에 큰 진전을 보였고, 거의 다 왔다” 라고 주장.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과 간극이 크다고 언급해 왔으나, 펠로시 의장은 진전이 있다고 언급해 투자 심리 개선. 공화당 상원의원인 루비오는 더 큰 규모로 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 물론 합의가 된다 해도 법안 작성 등 시간이 필요해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그러나 긍정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자 경제지표 호전과 더불어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주식시장에서 금융, 에너지 업종 강세를 이끔

한편, 카지노, 리조트 회사인 라스베가스 샌즈(+8.42%)는 마카오, 싱가폴, 미국 등에 카지노를 가지고 있어 코로나 영향을 알 수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인데 이날 실적을 발표. 매출액이 전년 대비 82% 급감하는 부진했으나 주가는 급등. 이는 모두가 코로나 피해를 알고 있고, 마카오를 중심으로 양호한 수치가 나오는 등 회복 초기 단계라는 점이 부각 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 영향으로 여행, 항공, 에너지, 운송 등 코로나 피해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향	Close	D-1	지수동향	Close	D-1
KOSPI	2,355.05	-0.67	홍콩항셍	24,786.13	+0.13
KOSDAQ	812.70	-2.16	영국	5,785.65	+0.16
DOW	28,363.66	+0.54	독일	12,543.06	-0.12
NASDAQ	11,506.01	+0.19	프랑스	4,851.38	-0.05
S&P 500	3,453.49	+0.52	스페인	6,796.60	-0.22
상하이종합	3,312.50	-0.38	그리스	608.90	-1.79
일본	23,474.27	-0.70	이탈리아	19,076.95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시간외, 인텔 10% 하락 Vs. 길리어드 사이언스 4% 상승

拉斯베가스 샌즈(+8.42%)는 급감한 매출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카오 지역 등에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이 영향으로 부킹 닷컴(+5.29%), 익스피디아(+9.00%) 등 여행주, 윈 리조트(+4.91%), MGM(+5.65%), 매리어트(+5.96%) 등 카지노, 리조트, 호텔업종, 카니발(+4.90%) 등 크루즈 업종등이 강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 GM(+4.58%)은 전기차 픽업트럭 허메에 대한 사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영향을 줬으나 이러한 여행 기대가 확산되자 강세를 보였고 포드(+4.59%) 등 자동차 업종과 델타 항공(+7.05%), 보잉(+3.18%) 등 항공주도 상승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0.76%)는 FDA가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사용을 승인하자 시간외 4% 상승 중이다.

JP모건(+3.53%), BOA(+3.41%)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 지속으로 강세를 보였고, 엑손모빌(+5.13%), 코노코 필립스(+4.14%) 등 에너지 업종도 추가 부양책 및 코로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0.75%)는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 출발 했으나 GM과의 경쟁 등을 감안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램 리서치(-2.35%)는 양호한 실적 발표 불구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크라운 캐슬(-4.60%)은 양호한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을 발표했으나 코로나로 임대수익 감소와 부채 증가를 언급하자 하락했다. 치포슬 맥시칸 그릴(-4.86%)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했다. 인텔(+0.75%)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로 10% 급락하고 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24%	대형 가치주 ETF(IVE)	+1.35%
에너지섹터 ETF(OIH)	+2.40%	중형 가치주 ETF(IWS)	+1.45%
소매업체 ETF(XRT)	+0.95%	소형 가치주 ETF(IWN)	+2.11%
금융섹터 ETF(XLF)	+1.99%	대형 성장주 ETF(VUG)	-0.08%
기술섹터 ETF(XLK)	-0.47%	중형 성장주 ETF(IWP)	+0.5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39%	소형 성장주 ETF(IWO)	+1.46%
인터넷업체 ETF(FDN)	-0.01%	배당주 ETF(DVY)	+1.90%
리츠업체 ETF(XLRE)	-0.7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0%
주택건설업체 ETF(XHB)	-0.8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9%
바이오섹터 ETF(IBB)	+1.46%	미국 국채 ETF(IEF)	-0.35%
헬스케어 ETF(XLV)	+1.51%	하이일드 ETF(JNK)	+0.16%
곡물 ETF(DBA)	+0.27%	물가연동채 ETF(TIP)	-0.15%
반도체 ETF(SMH)	-0.04%	Long/short ETF(BTAL)	-1.5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31.24	+4.16%	-1.26%	+0.87%
소재	413.14	+0.46%	-0.16%	+5.99%
산업재	683.01	+0.75%	-0.25%	+7.21%
경기소비재	1,238.94	+0.05%	-2.47%	+6.33%
필수소비재	670.57	-0.22%	-1.47%	+3.93%
헬스케어	1,251.08	+1.49%	+0.50%	+5.82%
금융	417.99	+1.88%	+0.75%	+8.02%
IT	2,085.95	-0.47%	-2.36%	+6.52%
커뮤니케이션	202.44	+0.85%	+1.05%	+6.55%
유저리티	328.35	+1.46%	+2.04%	+11.77%
부동산	219.28	-0.76%	-2.36%	+3.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외국인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2%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4.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주가 이를 주도 했고, 일부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코로나 피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자 여행, 운송, 에너지 등 관련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최근 글로벌 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한국 증시도 관련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미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 국채금리 및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유럽의 코로나 확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경제 봉쇄 또한 확산 되고 있어 부담이다. 이는 중국의 대 EU 수출 둔화를, 한국의 대 중국, 대 EU 수출 감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전일에 이어 오늘도 세자리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점, 인텔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시간외로 10%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주말을 앞두고 있어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과 글로벌 코로나 확산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한국 시각 10 시에 시작하는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바이든에 비해 지지율이 8%, 당선 가능성도 28% 뒤지고 있어 대선을 뒤 흔들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 이후 두 후보간 간극이 축소 된다면 11월 3일 대선 이후 트럼프의 불복 선언 등 정치 불확실성이 확산 될 수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여파로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미국 언론 평가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외국인의 선물 수급에 의해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주택 지표 개선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84.2 만건) 발표치나 예상(86.5 만건)을 하회한 78.7 만건을 기록해 3월 이후 처음으로 80 만건 이하를 기록했다. 4주 평균은 81만 1,250 건으로 감소했다.

9월 미국 기존 주택판매는 저금리 기조로 전월(598 만건)이나 예상(620 만건)을 상회한 654 만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9.4%, 전년 대비로는 20.9%나 급증 했고 주택 재고는 3.0 개월에서 2.8 개월로 감소 했다. 중간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15%나 급증한 31만 1,800 달러를 기록했다.

9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7%를 기록해 지난달 발표치(mom +1.4%)보다 둔화되었다. 10월 캔사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는 13을 기록해 예상과 부합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화 강세 및 코로나 재 확산 추이가 심상치 않아 수요 전망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심리와 일부 코로나 피해 업종의 회복 초기 신호등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러시아가 1 월로 예정된 감산 규모 축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고용지표 개선 등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로 인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코로나 관련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낙관적인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도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 더불어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여파로 유럽의 경제 봉쇄가 확산되자 유로존과 영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고용과 주택 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10 년물국채금리가 6 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여전히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미국 또한 6 만건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 둔화 및 침체 우려가 이어지며 금리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금은 지표 개선 및 부양책 기대 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강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1.7%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8% 하락했으나 철근은 0.6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0.64	+1.52	-1.45	Dollar Index	92.939	+0.35	-0.98
브렌트유	42.46	+1.75	-1.62	EUR/USD	1.182	-0.35	+0.96
금	1,904.60	-1.29	-0.23	USD/JPY	104.91	+0.31	-0.51
은	24.709	-2.11	+2.00	GBP/USD	1.3079	-0.53	+1.32
알루미늄	1,846.50	+0.16	-0.30	USD/CHF	0.9074	+0.21	-0.79
전기동	6,922.50	-0.99	+2.57	AUD/USD	0.7117	0.00	+0.32
아연	2,578.50	+0.39	+6.31	USD/CAD	1.3134	-0.09	-0.66
옥수수	416.25	+0.60	+3.10	USD/BRL	5.5997	-0.11	-0.25
밀	622.75	-1.11	+0.73	USD/CNH	6.6707	+0.40	-0.64
대두	1,072.25	+0.07	+0.97	USD/KRW	1132.90	+0.09	-0.90
커피	106.70	+2.45	-2.56	USD/KRW NDF1M	1134.95	+0.10	-0.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63	+4.04	+13.08	스페인	0.222	+1.90	+7.50
한국	1.505	-1.50	+3.30	포르투갈	0.198	+1.70	+5.50
일본	0.035	0.00	+1.20	그리스	0.928	+1.80	+10.60
독일	-0.566	+2.20	+4.40	이탈리아	0.802	+2.10	+10.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